



유럽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축소

최 원 선임연구원

■ 영국 보험회사인 아비바그룹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 진출 4년 만에 철수를 결정함.

- 2008년 아비바그룹은 우리금융지주와 합작으로 LIG생명을 인수하여 우리아비바생명을 설립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아비바생명 지분의 51.6%를, 아비바그룹이 47.1%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는 아비바그룹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 후, 본격적인 인수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금융그룹이 우리아비바생명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아비바그룹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며 해외보험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음.

- 아비바그룹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간사로 하여 아비바 USA의 매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아비바그룹은 아비바 USA를 약 18억 파운드(약 3조 2,000억 원)에 매입하였으며, 현재 기업 가치는 인수 당시보다 8억 파운드가 떨어진 약 10억 파운드(약 1조 8,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음.
- 캐나다 3위 생명보험회사인 선라이프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카자나 내셔널과 공동으로 CIMB 아비바 말레이시아 지분 98%를 약 18억 링깃(약 6,3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CIMB 아비바 말레이시아는 카자나 내셔널이 대주주로 있는 말레이시아 은행 CIMB그룹이 지분의 51%를, 영국 생명보험회사인 아비바그룹이 지분의 49%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

■ 한편, 네덜란드의 글로벌 보험회사인 ING생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7개 법인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음.¹⁾

-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비교적 사업 실적이 우수했던 ING생명의 한국과 일본 법인에 대한 매각이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1) 전용식(2012, 5, 29),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KIRI Weekly Issue 제184호 참조.

- ING생명 한국 법인의 경우 KB금융지주가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되어 인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KB금융지주 일부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협상이 무산됨.
- 인수 협상의 부결 이유로는 저금리 장기화, 가계부채 문제,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금융환경과 국내의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적 자본적정성 유지 등이 제시됨.
- ING그룹이 매각을 계획하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AIA그룹에 약 17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에 매각되었으며, 홍콩·태국·마카오 법인은 홍콩 퍼시픽센추리그룹(PCG)에 약 21억 달러(약 2조 3,000억 원)에 인수가 확정됨.

■ 최근 유럽 보험회사들의 글로벌 보험시장 철수는 본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 및 유동성 확보, 내실 강화 전략, 솔벤시Ⅱ의 대응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전략 수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 ING그룹의 경우 본사가 받았던 구제 금융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면서 매각을 결정하였으며, 아비바그룹은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본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글로벌 보험사업의 철수를 진행하고 있음.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기대응을 위한 본사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 보다 본사 위주의 내실 강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국제적 지급여력과 관련된 규제인 솔벤시Ⅱ²⁾ 시행으로 리스크 대비 요구 자본량 증가, 자산 운용 위축 등 경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보험사업 축소가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유럽 보험회사들의 글로벌 보험사업 축소가 글로벌 보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보험회사들의 무리한 해외진출로 건전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외진출 시에는 면밀한 수익성 분석과 현지 다른 보험회사들과의 경쟁도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규제차익을 얻기 위한 전략보다 현지화를 통한 수익 확보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WSJ 등)

2) 솔벤시Ⅱ는 당초 2014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연기된 상태임.